

P101

신이식 환자에서 새로 고안된 Urine tube(YZ tube)를 이용한 요침사의 측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형욱, 최범순, 양철우, 김용수, 김석영, 최의진, 장윤식, 방병기

신 질환 진단에서 요침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glass tube를 이용한 요검사에서는 요침사의 발견율이 낮다. 최근 새로 고안된 플라스틱 tube를 이용하여 요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glass tube를 이용한 경우보다 요침사의 검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의 glass tube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세포와 원주가 tube에 쉽게 유착되어 원심분리후 현미경 슬라이드에는 이러한 세포와 원주가 보이지 않게 된다 새로 고안된 YZ tube는 재질이 플라스틱이며 입구와 바닥에 구멍이 있으며 바닥에는 0.5mL의 볼(ball)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포와 원주가 원심분리동안 이러한 볼에 모이게 되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배출됨으로 현미경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신이식환자에서 기존의 glass tube와 YZ tube를 이용하여 두 방법 간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대상환자는 35명이었으며 82개의 소변으로 요검사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glass tube를 이용한 경우에는 82개의 소변중 4개에서만 과립상원주가 발견된 반면 YZ tube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0개의 소변에서 초자양원주, 23개의 소변에서 과립상원주, 27개의 소변에서 small round cell, 5개의 소변에서 small round cell 원주가 관찰되었다. 조직학적으로 급성거부반응이 확진된 2명의 환자에서 small round cell과 원주, 과립상원주가 관찰되었다. YZ tube을 이용하는 경우 요침사의 관찰가능율이 증가되어 이식신의 병리상태를 반영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리라 판단된다.

P102

신이식환자에서 발병한 폐 모균증(pulmonary mucormycosis) 1례

장민화, 이현철, 최혁준, 조지형, 신용봉, 조영준, 이덕현, 박선희, 김용림, 조동규
경북의대 신장내과

배경 : 신이식환자는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해 기회감염의 기회가 높다. 이 중 모균증(mucormycosis)은 Mucorales 목에 속하는 진균으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기회감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이식환자에서 모균증 감염예의 보고가 없다. 저자들은 신이식후 발생한 폐모균증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44세 여자 환자로 내원 8년전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2년간 시행 후 신이식을 받았으며 신이식후 2년만에 조직검사로 진단된 만성거부반응으로 다시 복막투석을 시작하였다. 2년후 뇌사환자로부터 2번째 신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로 FK506, MMF, steroid를 복용하며 추적관찰중 고혈당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흉부방사선사진상 좌측 폐문 부위에 종괴가 관찰되어 실시한 조직검사상 폐모균증으로 판명되었다. 즉시 Amphotericin B로 치료를 시작하였고 좌상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Amphotericin 총 1.5g 사용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당시 경도의 크레아티닌 상승을 보였으나 Amphotericin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적관찰상 정상수치로 회복되었다. 현재 환자는 폐모균증의 치료 후 8개월째 재발없이 안정된 상태로 FK506과 MMF를 복용중이며 외래에서 추적관찰중이다.